

광주시, 자동차 부품기업과 긴급 간담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부품업계 파급영향 및 대응책 논의

광주그린카진흥원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원센터 운영키로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4일 오후 그린카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부품업계 파급영향 및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 자동차부품기업과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들의 부품 생산과 납품 차질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광주시는 중국부품 수급 차질로 인한 완성차업계 휴무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 부품기업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4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그린카진흥

원 주관으로 자동차산업 산학연 협의회를 비롯한 자동차부품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이 직접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여파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부품 생산과 납품

차질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광주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지역 부품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주그린카진흥원 내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피해기업의 접수를 받은 후 피해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자동차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광주형 일자리 기반 확산 모색을 위한 광주시 2020년도 중점 추진 사업설명과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실정에 대해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시 2020년 중점 추진사업인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 사업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광역협력권산업육성

사업(기업지원서비스) ▲시군구지역연고산업육성(비R&D)기업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광주주요특장차규제자유특구사업 ▲자동차산업네트워크활성화사업 ▲상생형일자리기업역량강화지원사업 등을 설명했다.

지역 자동차부품기업들은 ▲광주형 일자리 차종, 전기차 등 신차종 개발비 자체 조달 어려움 ▲금융기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지역 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등을 건의했다.

신재봉 광주시 자동차산업 산학연 협의회장은 “광주시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부품기업들과 광주시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지역부품기업의 역량강화와 상생협력 위한 광주시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자동차산업 메카 도시로서 재도약하기 위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지역 부품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반영,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동구 “개인 컵 사용으로 음료할인 받으세요”

광주 동구가 청사 내 커피전문점과 ‘일회용품 Zero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일회용품 Zero운동’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과 종이컵 등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실천협약 1호점인 ‘D커피스토리’는 방문고객이 개인텀블러를 사용해 음료를 주문할 경우 2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가게 내부에 비치된 기부함을 통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게 된다.

서구 “노후건축물 무료로 안전점검 받으세요”

광주 서구가 늘어나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코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15년 이상된 서구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로 2월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안전총괄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건축물 선정은 건축물대장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해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4월부터 소유주와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건축 분야를 기본으로 토목, 소방, 전기, 가스 중 신청서에 선택한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남구, 넘치는 情 살맛나는 공동주택 3곳 선정

광주 남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주거 공동체 실현에 앞장선 관내 3곳의 아파트를 우수 공동주택 단지로 선정했다.

4월 남구에 따르면 이날 구청에서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시상식’이 열렸다.

지난해 주거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효천1리 천년나무 3단지, 비룡동 남에오네트 및 백운휴먼시아 3단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북구,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추진

4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올해 특수시책으로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주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미등기 토지’란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 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됐으나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에 북구는 아직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 947필지 1054천㎡를 대상으로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재산세 등 공공정보의 공유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상속인을 적극 찾아 나선다.

광산구, 풍영정전 주변 시설개선 사업 추진

광주 광산구가 풍영정전 주변 산책로 경관개선, 수완 호수공원 경관조명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으로 광주대표 랜드마크 조성에 나선다.

풍영정전은 장성군 진원면에서 영산강 합류부까지 길이가 16km인 광주 대표하천으로, 이중 7.4km가 광산구에 걸쳐있다.

하지만 수완지구 조성 후 특별한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 민원이 빈번했고, 광산구는 이번에 풍영정전을 새 단장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약 20억원을 들여 ▲풍영정전 산책로 밝기 개선 ▲수완지구 보행환경 개선 ▲수완호수공원 경관조명 설치 및 시설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임형택 기자

전남문화관광재단, 예술인 복지증진·교육 프로그램 발굴

복지 서비스 지원센터 개소...문화지소 사업 확대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2020년도 역점사업을 4일 발표했다.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예술인 복지 서비스 지원센터를 3월 개소·운영한다.

센터를 통해 △창작예술활동 지원 증진 △예술인 복지사업 홍보 확대 △예술인 법률·행정 서비스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서비스 △예술인 일자리 연계 기업수요 조사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단은 지난해 전국 최초

로 추진한 ‘문화지소’ 사업을 더욱 확대해 ‘시군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지소’ 사업은 시군의 문화예술 교육 단체들이 모여 시군의 중장기 문화예술 교육계획을 논의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과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이다.

재단은 이미 2019년 전남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연구를 진행하고 답답과 장흥에 2개 지소를 개소해 시범운영을 마쳤다.

올해는 3개 지소를 운영하고, 문화지소 설립 근거가 될 시·군 단위 조례 제정과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역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안공항 중심 해외관광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국제 크루즈선 5항차(대만 4항차, 한국 1항차) 입항, 크루즈 해외 관광객 2만7000명 유치로 목표로 세우고 일본,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홍콩, 유럽, 미주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항지 관광상품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에 대한 심층연구와 학술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해 전남의 전체 마한유적에

대한 총론적 분포현황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올해는 마한 ‘분묘유적’과 ‘취락유적’에 대한 학술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전남의 마한 분묘유적’을 발간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해 마한문화 정립을 위한 학문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굴조사는 지난해 고대 마한의 최상위 수장층 무덤으로 확인된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하부에 존재하는 석실 내부부를 본격 발굴조사해 마한문화권의 실제 규명을 위한 고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순진 전남문화관광재단 대표는 “대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직원의 직무교육과 상시 업무연찬으로 고객 중심의 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되도록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시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끼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에 예외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의 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제 결실추진위원회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능력에서 재인한 솔로건입니다.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보험료	급여	비율
240,833원	125,531원	1.1배
79,147원	48,103원	1.7배
48,103원	26,697원	2.1배
26,697원	-	2.7배
-	-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